



파/키/스/탄 박해와 미래의 신앙

가톨릭 세례를 받은 후 카미제(Kamijee)는 그의 딸과 함께 ACN이 후원하는 회심자 공동체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만 4세 소녀 디비아(Divia)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믿음의 소중한 상징인 기적의 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극단주의로 고통받는 나라 파키스탄에서, 디비아의 믿음은 박해라는 그림자 밑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도가 자그마치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문맹률이 70%인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의 수는 3백만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우려면 어떤 일들을 더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하여 ACN 방문단이 파키스탄을 향했습니다. 방문단은 폭탄 테러로 1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망하고 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라호르를 찾아갔습니다.¹⁾

주일 아침이었던 그날, 한 청년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만 20세의 청년, 아카시 바시르(Akash Bashir)는 자살폭탄 테러리스트가

교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끝내 사망하였습니다.²⁾

파키스탄은 순교자의 땅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여러 소수 종교인들은 언제 신성모독죄로 누명을 뒤집어쓸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아이들의 어머니, 아시아 비비(Asia Bibi)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니다. 실제로 그녀는 예언자 마호메트를 모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방문단은 파키스탄에서 ACN 활동의 증거와 결과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ACN과 협력하여 이곳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며 아이들에게는 교리 교육과 정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훈련받은

수녀님들께서는 학교와 병원 등지에서 활동하시며 신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교회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또한 많습니다. 신학생들은 성소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 찾아오고, 교리교사들은 새로운 공동체로 뻗어가고 싶어 하며, 그리스도교 여성들은 여성 탄압과 사회적 편협함을 극복하고자 기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파키스탄 주교회의 의장이신 카라치대교구장 요셉 카우츠 대주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를 넘어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라호르는 지난 예수 부활 대축일, 자살폭탄 테러로 어린이 29명을 포함하여 7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340명의 사람들이 부상당한 곳입니다. 본문은 그 이전의 시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2) 바시르의 부모님과 나눈 인터뷰가 뒷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웃을 위해 스스로의 삶을 바쳤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은 성당 안으로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년 아카시 바시르(Akash Bashir)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바시르는 자원 봉사자로 라호르의 성 요한 성당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리스트가 성당을 침입하는 사건이 이미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바시르를 비롯한 여러 젊은이들이 자진하여 성당을 지키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미사가 진행되는 도중 수상한 인물이 성당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바시르는 사

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리스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희생하여 수많은 인명을 구했습니다.

바시르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자신이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카시는 아침 미사에 참석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바시르의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회상합니다. “아카시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제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지만, 그 어떤 아이

도 우리 아카시를 대신할 수는 없었지요. 사실 위험하니까 그만두라고 아카시를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카시는 자신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2015년 5월,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후 교회 지도자들은 당국과 협력하여 폭력과 테러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교님들은 신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당에 보안 카메라와 담벼락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자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Pray for **ASIA BIBI**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아시아 비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ACN은 그녀의 석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종교 자유까지 1 : 0



역사는 우리에게 스포츠, 어쩌면 축구가 긴장과 갈등의 시기 속에서 사람들을 한 데 모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기서 임마누엘 파르베즈(Emmanuel Parvez) 신부님께서 영감을 얻으시어 파키스탄 4개 주의 그리스도인과 이슬람교도 모두가 참가하는 연간 축구대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15년 전, 펀자브주 그리스도인 지역 쿠시푸르에서 처음 개최된 이 축구대회는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32개의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3차전에 초대해 주신 신부님으로부터 우리는 펀자브주의 수문드리 축구 클럽 소유자인 이슬람교도 모하메드 샤피크(Mohammed Shafiq)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지방 의회에서 그리스도교인과 이슬람교도의 관계를 담당하는 샤피크 씨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는데, 그중 축구대회는 아주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축구가 가난한 이들만이 하는 운동이었고, 크리켓과 비교하여 어떻게 이류 스포츠 취급을 받았는지 설명하며 샤피크 씨는 “임마누엘 신부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신부님과 저는 파키스탄에서 축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대합니다.

ACN은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편견을 부수고, 종교를 초월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억압과 폭력 사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른 종교 소수 집단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ACN은 임마누엘 신부님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주교님들께서 감독하는 정의평화위원회 활동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주교님들께서는 극단주의 무리들에게 위협당하며 신성모독죄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고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힘쓰십니다.

샤지아를 거뒀을 때 그녀는 피골이 상접하도록 말라있었습니다.

신변보호를 위해 그녀는 가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지아(Shazia)가 임신 중이었을 때, 그녀의 약혼자는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하고 말았습니다.

만 25세에 불과한 샤지아의 가족들은 그녀가 미혼모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샤지아는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신부님께서는 그녀를 착한 목자의 수녀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녀님들은 안전한 곳에서 정성을 다해 샤지아를 돌보았고, 이제 출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산모도 아이도 모두 무사합니다.

ACN은 샤지아와 같은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여성센터 그리고 소녀들에게 상담, 병원 진료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수녀님들과 이를 지지하는 단체의 활동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소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봉제 기술 등의

직업훈련과 준비과정을 마련해 주십니다.

한 수녀님께서는 “우리는 단순히 소녀들을 돕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녀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하고 있어요. 소녀들이 잃고 있었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이 그저 기쁩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ACN은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수녀님들의 손길이 절실한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신자들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니엘라(Daniela) 수녀님께서서는 35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수녀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여러 소수집단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이슬람교로 개종하라는 압박을 받으며 고향에서 추방당할 때도 있습니다.

카라치대교구에서 작은 성물방을 담당하시던 83세의 바오로딸 수녀님께서 창문을 통해 간신히 지붕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해 야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십자가, 성상, 성가 CD 등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성물방에 침입했기 때문입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녀님께서서는 “항상 협박을 당했지요. 그들이 성가 CD와 테이프를 훔쳐 갔더군요. 주교님 덕분에 빼앗긴 물건들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요.”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곳의 신자들이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용 색칠공부 책과 같은 아주 저렴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모두 그 소박한 물건에 행복해합니다.”

ACN은 다니엘라 수녀님과 동료 수녀님들께서 외딴 지역의 공동체까지 방문하실 수

있도록 자동차 한 대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제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녀님께서서는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봅니다. 묵주나 책을 건네면 그들의 얼굴은 활짝 빛나지요.”라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수녀님의 곁에는 주위에 항상 좋은 영향을 미치는 코말(Komal) 수련 수녀님 그리고 루크사나(Rhuksana) 수련 수녀님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ACN은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수녀님들께 여러 성물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후보 성인을 닮아 삼손(Samson)은 신학생 중 가장 힘이 셉니다.

삼손은 카라치대교구 그리스도 왕(Christ the King) 신학교에서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 공부에 정진하면서도, 기계를 고치고, 농사를 짓는 등 여러 일을 병행합니다. 만 29세 신학생의 앞날에는 시련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저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제 서품식 이후 삼손은 쿠에타의 산악 지대로 부임하고자 합니다. 그곳은 그리

스도인 공동체가 탈레반의 위협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자들이 위협받고, 사제들이 위협받습니다. 사람들은 납치 당하고 죽음을 당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는 해발 1,300미터의 높은 지대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만났던 분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실했던 그들의 가

장 큰 소망은 바로 사제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사제로서 봉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곳 신자들은 크리켓을 좋아하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삼손은 웃으며 말합니다.

ACN은 삼손과 그의 동료 신학생 35명이 교육받고 있는 카라치의 그리스도 왕 신학교를 지원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도서관의 서적과 수업료, 전기발전기, 식수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